

관광산업 위기 극복 '핫스팟 발굴단' 뜬다

화순군, 온라인 관광마케팅 강화... SNS 비대면 콘텐츠 발굴 등

화순군이 코로나19로 인해 여행 기피, 관광상품 운영 중단 등 관광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맞춤형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한다.

13일 화순군에 따르면 군은 색깔있는 화순여행 콘텐츠 제작, 추억의 온라인 화순여행 사진 공모, 화순 핫스팟 발굴단 운영, 맘카페 홍보, 파워 인플루언서 홍보, 인스타그램 채널 화순 홍보 등을 추진한다.

올들어 9월까지 화순 관광객 통계는 102만985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8% 줄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역 관광산업의 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개별 여행 증가, 안전한 관광지 수요 증가 등 새로운 관광트렌드에 맞는 온라인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다양한 홍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여행 전문 유튜버와 협업을 통해 '색깔있는 화순 여행'이라는 온라인 콘텐츠를 발굴·제작해 홍보할 계획이다. 유튜버가 여행 테마에 맞는 화순 지역 1박2일 여행코스를 기획해 여행한 후 직접 체험하고 취재한 여행 후기를 작성하고 영상을 제작한다. 영상과 여행 후기를 자신의 유튜브에 게시해 관광화순을 홍보할 예정이다.

'추억의 온라인 화순여행 사진'은 코로나19 이전 시기에 화순 여행 사진 공모 사업이다. 화순관광을 추억하며 관광 위축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기로 했다.

블로그·사진작가 등으로 구성된 '화순 핫스팟 발굴단'도 운영한다. 발굴단은 화순 지역 비대면 관광지를 선정해 직접 여행하며 안전하고 멋들어진 화순 관광명소를 소개한다.

이밖에 관광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화순 동북 웅성산 정상에서 바라본 적벽.

<광주일보 자료사진>

위해 맘카페·파워 인플루언서를 통한 홍보와 인스타그램 화순 기획 홍보 등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관광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다양한 비대면 콘텐츠를

발굴해 온라인 홍보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여행을 위한 방역체계 구축 등 새로운 관광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농기계임대사업소 강진군 칠량에 설치

농림부 사업 선정... 20억 확보

강진 칠량면에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설치된다.

강진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전국 농기계임대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내년도 농기계임대사업 사업비 20억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42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강진군은 평가 결과 A등급을 받아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16억원, 노후 농기계 대체 2억원, 주산지 일관 기계화에 2억원 등 농기계임대사업 관련 3개 사업에 20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강진군은 내년에 남부권역(칠량분점)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강진군은 지난 2005년 농기계임대사업소 개소 이후 지난해 북부권역(좌천분점) 임대사업소 등 2곳에서 임대 농기계 106기종 324대를 보유, 임대하고 있다.

강진군은 민선7기 공약사업에 맞춰 권역별 확대 운영 계획으로 올해 서부권역(도암분점) 공사가 진행 중이며, 내년에 남부권역 사업소를 설치한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많다.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으로 농기계 구입의 부담을 경감시켜 영농비 절감과 영농편의를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아동 학대 막자' 나주시 아동보호팀 신설

보호전담요원 배치... 신고·접수 등 공적 책임 강화

나주시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업무 전담을 위한 아동보호팀을 신설했다.

나주시는 아동학대 조사 책임을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관련 법령 시행에 따라 지난 6일 부서개편을 통해 '아동보호팀'을 신설했다고 12일 밝혔다.

아동보호팀 신설은 정부 국정과제인 '포용국가 아동정책 10대 핵심과제' 중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

면 개편 추진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추진됐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업무가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자체로 이관됐다.

지자체는 업무 수행을 위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을 의무 배치해야 한다. 나주시는 아동보호팀에 아동학대 조사 공무원 2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2명을 배치했다.

아동보호팀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를 통한 학대 판단, 응급보호 등 원가정 복귀 업무와 더불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 심리검사 등을 수행해 관리계획을 수립, 점검한다.

또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경찰과 함께 학대 사건을 조사한다.

이와 함께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학대 행위자에

대한 출석이나 진술,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기존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담당했던 전남중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적 사례관리관으로 업무를 변경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해 재학대 방지 및 피해 가정에 대한 지원에 집중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아동 보호의 핵심주체가자 컨트롤타워로서 학대아동의 권리 확보와 안전이 최우선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민간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해 학대 아동가정에 대한 사례 관리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kson@kwangju.co.kr

옥상 텃밭 정원서 힐링하세요

나주 농업센터 '꽃구름' 개장

나주시는 도시농업 공간 조성사업의 하나로 농업기술센터 3층 옥상에 텃밭과 정원이 어우러진 심터 '꽃구름'을 개장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 '꽃구름'은 꽃과 구름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정원이라는 의미다.

나주시는 지난해 빛가람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어 농업기술센터 옥상 500여㎡에 텃밭 정원을 조성했다.

사업비 8000여만원이 투입된 정원은 '지역(-)자' 형태로 채소와 허브 등 다양한 작물을 기를 수 있는 텃밭 상자와 테이블, 벤치 등 휴식 기능을

갖춘 아담한 카페 공간이 함께 마련됐다.

옥상 모서리 공간에는 데크형 전망대를 설치, 기존 높은 담에 가려졌던 바깥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도시농업 공간 조성사업은 도시농업 인프라 확대와 자연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공영도시 농업농장, 실내식물 조성시설, 옥상 텃밭 조성 등을 추진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텃밭 정원은 농업기술센터 직원과 내방객을 위한 여가쉼터 공간이자 도시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kson@kwangju.co.kr



범죄피해자 맞춤형 지원 화순경찰, 유관기관 간담회

화순경찰서는 13일 광주·전남범죄피해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범죄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화순군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등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 등 신속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실무적 논의를 진행했다. 또 사례회의를 통해 범죄피해자가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경철 화순경찰서장은 "범죄 피해자가 발생하면 유관기관과 간담회 및 사례회의를 통해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